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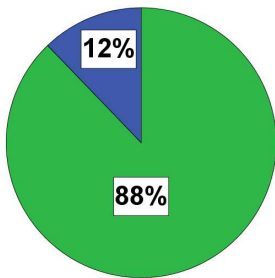
윤석열 정부 모피아 권력지도

■ (모피아 현황) 윤석열 첫 내각 기재부 출신 고위공직/기관장급 관피아*는 전체의 12% 차지

*관피아: 정부 부처의 퇴직공직자가 관련 기관·기업·단체 등에 재취업하고 인맥과 지위를 이용하여 재취업 기관의 이익 대변하는 자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2022), 소위 고위공직 회전문 인사(퇴직후 재취업자)·낙하산 인사(타부처 재취업자)를 말함

<참고1> 모피아 비중
윤석열 정부 기재부 출신
고위공직자/기관장 비율(%)

*출신: ■ 기재부 / ■ 비기재부



● (명목) 공석을 제외한 총 533개 대비 65개(12%) 직위자들이 기재부 출신자들로 내각 구성 <참고1>

■ (실질) 검직을 제외할 경우 38/504명(7.5%) 전/현직 모피아 인사 내정자들 확인

※관피아 전체 현황: (명목) 389/533개 직위(73%), (실질) 362/504명(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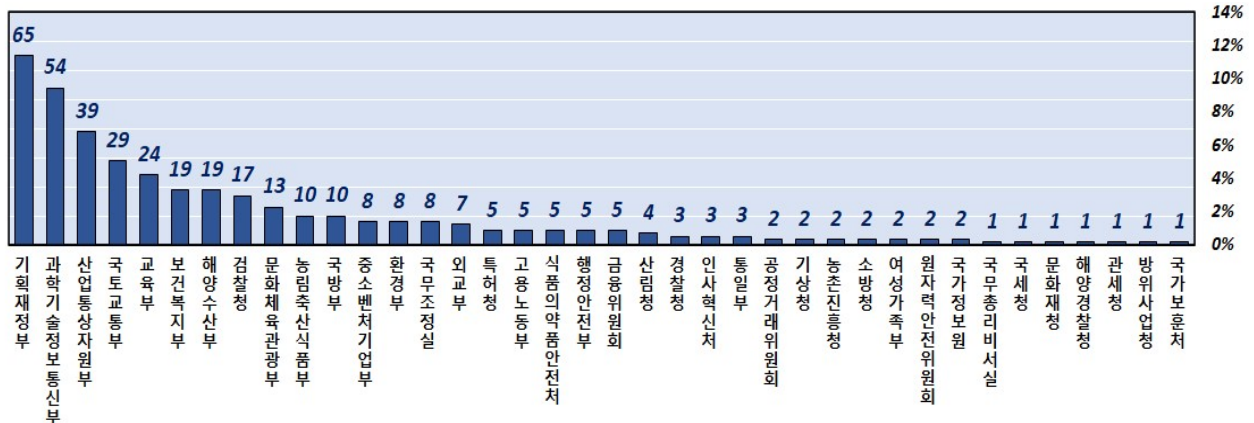
조사방법

대통령실 1~3급을 포함한 행정부 장차관급 고위공자, 공공기관장, 비/상임이사·감사 등 전체 533개 직위자 504명(2022.6.13. 기준) 대상으로 프로필, 인사보도자료, 알리오 및 닥트 경영공시 시스템 정보 등을 수집하고, 낙하산·회전문 인사 389명을 출신별로 분류하여 각종 통계분석 진행

■ (관피아 세력도) 출신부처별 산하기관을 포함한 관피아의 고위공직 점유율을 집계한 결과, 1위 기재부(모피아, 12%) > 2위 과기부(과피아, 10%) > 3위 산자부(산피아, 7%) 순으로 윤석열 정부 내 절대다수 세력을 형성 <참고2>

<참고2> 출신부처별 고위공직/기관장급 관피아 세력도 (2022년)

- 윤석열 정부 내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 주무 부처기준 직위 점유수(개) 및 전체(533개)직위 대비 점유율(%) -



※ (상위 25% 부처별 점유율) 1위 기재(12.2%), 2위 과기(10.1%), 3위 산자(7.3%), 4위 국토(5.4%), 5위 교육(4.5%), 공동6위 복지·해수(3.6%), 8위 검찰(3.2%, *검사 2.6%[14명]), 9위 문체(2.4%), 공동10위 국방·농림(1.9%), 공동12위 국무·중기·환경(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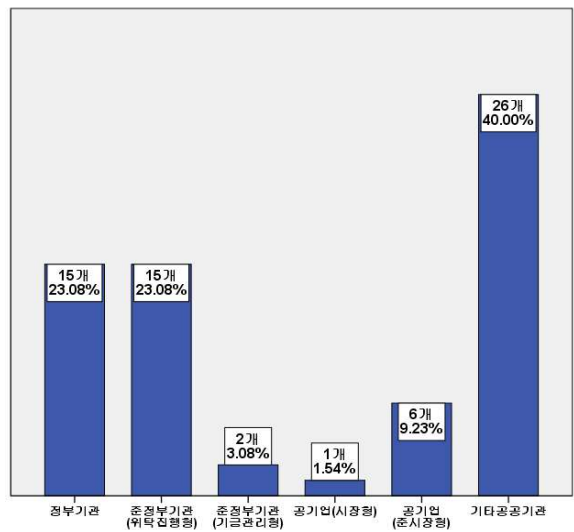
● (예산지원) 윤석열 정부가 293개 관피아 기관장들에게 지원할 2022년 예산규모는 총예산(710조6,076억원)의 86%인 608조4,153억원, 모피아 기관장에게는 4.7%인 33조 6,560억원 규모(6위), 1개 기관당 모피아 예산지원액 전체평균 대비 4.4배 수준(5위)

● (보수지급) 동기간 관피아 377명에게 지급할 보수는 총보수(694.2억원)의 73%인 504.5억원 (총예산의 0.01% 규모), 모피아에게는 5.9%인 41억2,922만원 지급 예정 (3위)

■ (모피아 분포) 윤석열 행정부 내 10개 정부기관 15개 직위 및 44개 공공기관 50개 직위 독과점

<참고3> 윤석열 정부 첫 내각 행정부(좌) 및 공공기관(우) 모피아 분포도

- 고위공직/기관장급 기재부 출신자 인원수 및 직위수 - *단위: (좌) 인원수 / (우) 직위수(검적조합)



● (정부기관 내) 모피아 12% (15/123명)

■ (국무총리) 한덕수(행시8) 盧정부 경제부총리

주요논란

- ⊗ S-Oil 사외이사(2021-2022) 고액보수 논란
- ⊗ 한국무역협장(2012-2015) ▲비포생일파티 참석 논란, ▲특급호텔 헬스장 무상이용(김영란법 위반) 논란
- ⊗ 주미대사(2009-2012) ▲업추비 골프비, ▲배우자 후원특혜 논란
- ⊗ 김앤장 고문(2002) 론스타 게이트 연루(변호사법 위반) 논란

지원예산 6,559억원 연봉 1억 8,959만원

● (공공기관 내) 모피아 12% (50/410개)

■ (기재부산하) 모피아 회전문 인사 4명 독점

< 한국재정정보원 >

- 15. 원장 박용주(행시24), 기획예산처 출신, 퇴직후 재취업
- 26. 상임이사 윤채영, 기재부 기획조정실 퇴직후 재취업
- 31. 비상임이사 남봉현(행시29) 기재부 퇴직후 인천항만공사 사장 역임 등 재취업
- 35. 비상임이사 나주범(행시35), 기재부 現규장 당면 이사직 검직

지원예산 689억원 총연봉 3.2억원 1인당 7,968만원

■ (대통령실) 모피아 회전문 인사 4명 절대다수

3. 비서실장 김대기(행시22), MB정부 청와대 정책실장·경제수석

주요논란 SK, 한화, 두산, 맥쿼리 사외이사 (2013-2022)

지원예산 478억원 (국가보실 50% 제외) 연봉 1억 3,942만원

6. 경제수석 최상목(행시29), 차정부 금융경제비서관, 기재부 제1차관

주요논란 ⊗ 차·최순실 국정농단 미르재단 출연·위증 논란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 의혹 ⊗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추진 등

차관급 고정급 연봉 1억 3,540만원

22. 기획비서관 박성훈(행시37, 사사43), 前부산시경제부시장/국힘소속

1급상당 직무급 및 12%상여금 연봉 1억 977만원(추정)

23. 경제금융비서관 김병환(행시37), 대통령실 부산출신자 “트리오”

2급상당 직무급 및 12%상여금 연봉 9,598만원(추정)

■ (타부처산하) 17개 비상임이사직 “문어발” 검직

37. 기재부 현 심의관 겸 17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한경호(행시36)

소속기관	관리예산(원)	연봉(원)
기획재정부	-	82,044,48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72,093,000,000)	4,148,00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21,746,000,000)	7,000,000
국가평생교육진흥원	(91,697,000,000)	900,000
경북대학교병원	(35,137,000,000)	1,333,000
충남대학교병원	(32,420,000,000)	675,000
경상국립대학교병원	(31,748,000,000)	900,000
충북대학교병원	(30,876,000,000)	600,000
한국고전번역원	(22,493,000,000)	1,500,000
전북대학교병원	(20,564,000,000)	0
전남대학교병원	(18,738,000,000)	1,200,000
제주대학교병원	(8,887,000,000)	600,000
강원대학교병원	(6,515,000,000)	0
부산대학교치과병원	(2,711,000,000)	0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2,025,000,000)	360,000
부산대학교병원	(1,032,000,000)	0
경북대학교치과병원	(750,000,000)	400,000
한국사학진흥재단	(0)	8,000,000
합계	총 1.1조 원	총 1.1억 원

■ (기재부 내) 모피아 회전문 인사 3명 독점

2. 장관겸경제부총리 추경호(행시25), 차정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 제1차관

주요논란 ⊗ 재정부 은행제도개정(2003-2006) 론스타게이트 승인

⊗ 딸 공공기관 채용특혜 의혹 ⊗ 정치자금 월세·관리비 납부 논란

지원예산 29.6조원 연봉 1억 4,335만원

9. 제1차관 방기선(행시34), 차정부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책 총괄

차관직 고정급 연봉 1억 3,540만원

10. 제2차관겸 6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최상대(행시34), 재정준척(예정)

(합계) 관리예산 총 29.8조원 연봉 총 1억 5,648만원

■ (금융위원장) 모피아 낙하산 후보자

주요논란 ⊗ 예금보험공사 사장시절 (2012-2015)

▲저축은행사태 채권회수 부실, ▲예보기금 BIS부실 저축은행 지원 “배임” 논란, ▲차정부 예술계 블랙리스트 채무·지원관리 논란 (국회 속기록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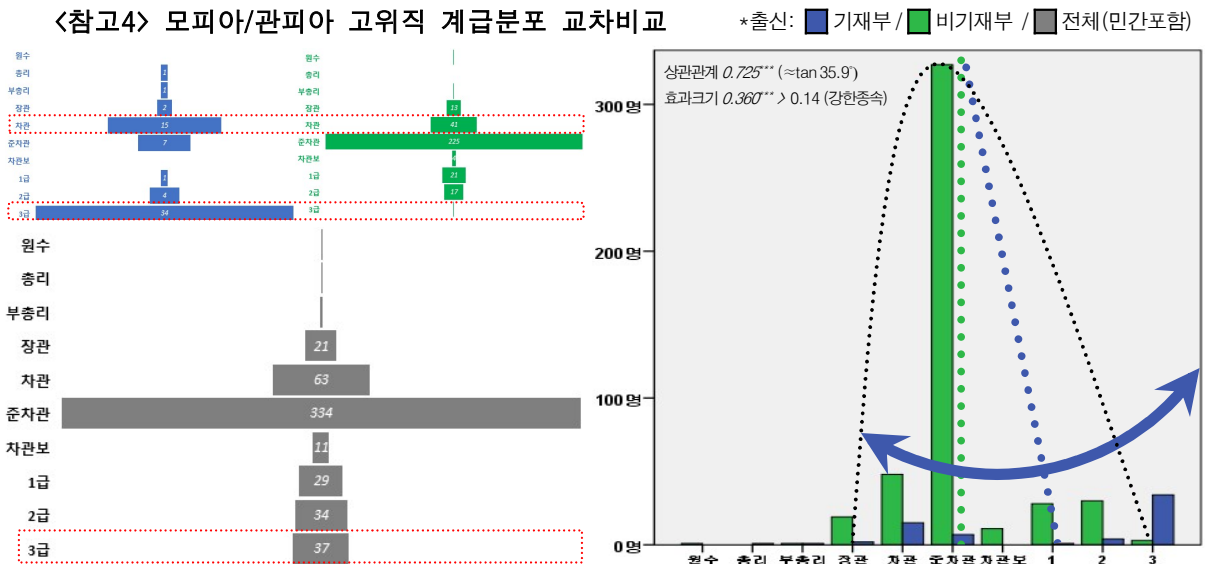
⊗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 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이사직 자리 만들기 재취업 및 고액연봉 “먹튀” 논란

⊗ 론스타 게이트 개입 실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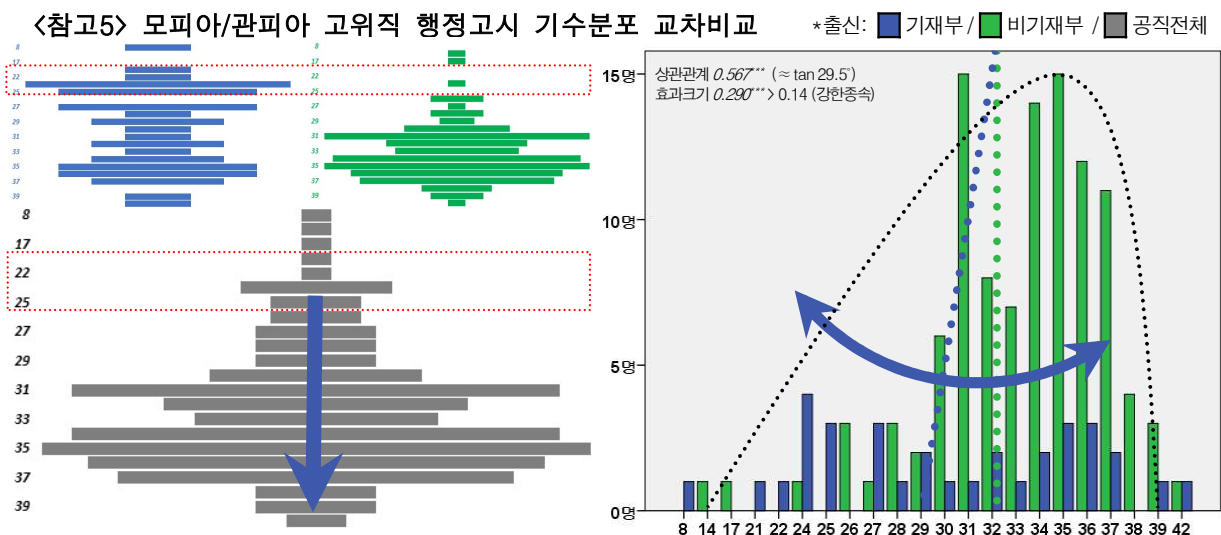
김주현 (행시25) 現여신금융협회장, 카드·대부업계 대관업무 수행중

● (권력분포) 모피아의 경우 비교적 중간권력이 적어 집단 내 권력 격차가 크고, 관피아 세력간 ‘비대칭(피라미드)’ 권력구조에서도 상당수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강한 “상명하복(종속)” 관계를 보임

■ (계급) 기재부 출신들의 경우 비교적 행정부 내 총리·부총리·차관 등 소수의 고위계급도 많고, 3급상당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직 등 다수의 하위계급도 많아 특정계급(3급)이 하위집단을 대체하는 등 양극단에 계급분포가 상당수 집중돼있어서 평균·중간계급(준차관·차관보)이 적은 형태 <참고4>



■ (행시) 모피아(37명, 평균 29.1기)의 경우 중간기수 25기, 최다(최빈)기수 24기 등 특정기수가 상위집단을 대체하고 비교적 상위분포 내 상당수 집중돼있어서 평균·중간기수가 적은 형태 <참고5>



※ (행정고시 출신 고위직 관피아 전체 기수분포) 35개 부처 168개 직위자 141명, 전체평균 32.4기, 최빈 35기, 최소 8기(국무총리), 최대 42기(국토부 2명), 중위집단 내 최소평균 금융위(27.1기) / 최대평균 농림부(36.8기)

∴ (상명하복관계) 공통적으로, 비대칭 권력관계에서 모피아 상당수(장차관급, 행시 24, 25기)가 고위공직 뿐만 아니라 연공서열의 우위까지도 독차지하고 있어서 모피아의 지배 아래 종속될 위험 높음

※ (기타 연공서열) 기술고시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연령 및 사법고시의 경우 신뢰를 추정하기 어려움. 외사·입법고시, 군인의 경우 극소수

● (회전문 인사*) 관피아 10명 중 4명, 모피아 10명 중 7명
 풀로 퇴직후 사외이사 등 민간경력자 고위공직 재취업 <참고6>

- (기재부) 직위 · 인구수 대비 66% (25/38)
- (비기재부) 직위 · 인구수 대비 38% (159/324)

* (판별기준) 회전문 인사 [Revolving door]: 입법과 규제 역할을 하는 고위공직자가 그 영향을 받는 민간산업과 공직사회 사이에서 인사이동을 일컫는 용어로, 공직 퇴직후 민간기업 · 협회 · 단체 등에 취업하여 로비스트로서 대관업무 등을 하다가 다시 공직으로 재취업하거나 재임용되는 것 ☞ 퇴직후 고위공직 재취업자

(캠코더 인사) 경력관리용 비상임이사·감사직 사례多
 (이해상충 우려) 경제부처 퇴직자들의 경우 민간기업
 감사·사외이사를 거쳐 공직에 재취업하는 사례多

<참고6> 윤석열 정부 회전문 인사

- 비/기재부 출신 고위공직자간 교차비교 -



<참고7>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
 - 비/기재부 출신 고위공직자간 교차비교 -



● (낙하산 인사*) 관피아 10명 중 6명, 모피아 10명 중 8명
 풀로 타 부처 내 고위공직, 기관장직, 비/상임이사·
 감사직 겸직 또는 재취업 등 낙하산 내정자 <참고7>

- (기재부) 직위수 대비 86% (56/65개), 인구수 대비 76% (29/38명)
- (비기재부) 직위 · 인구수 대비 59% (192/324)

* (판별기준) 낙하산 인사: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에게 기관장 등 공직에 요구되는 전문성을 무시하고 고위관직을 분배하는 관례를 일컫는 비유적인 말로 “천상에서 내려온 신(天下り): 낙하산 인사,” 개인의 능력 · 실적 · 전문성에 반하는 인사제도 ‘업관제 [Spoils system]’ 와 유사한 말 ☞ 타부처 고위공직 재취업자

(전문성 우려) 모피아의 경우 타부처 낙하산 인사多
 (정책기능 상실) 문어발식 겸직 등 전문성 불일치
 사례를 감안하면 정상적인 직무수행 기대가능성無

● (관련분야) 고위공직 모피아의 경우 출신부처 등
 유관기관 경제분야 직무 관련성 50% 수준 <참고8>

- (전문성 일치) 재정세재 > 금융 > 경제일반 등의 순으로 비교적 높은 유관성(종속성)과 독과점을 보임
 - (전문성 불일치) 과학기술 > 교육 > 국토교통 등의 순으로 비교적 유관성이 낮고, 타 부처 관피아 세력들과 독과점 경쟁
- ☞ (실질) 교육분야 등 당연이사직 제외 68% 일치

(직무 관련성) 최소 절반이상 “정량적 일치” 추정

※ (관피아 전체 일치도) 총 24개분야 직무 관련성 40% 일치 (#별첨 15면 참조)
 (직무별 관피아 독점현황) 공동1위 국방·금융(각각 92.9%) > 3위 산업통상(89.6%)
 > 4위 국토교통(86.0%) > 5위 교육(85.4%) > 6위 행정(85.0%)

<참고8>모피아 직무 점유율과 관련성

- 분야별 기재부 출신 고위공직 점유율 교차검정 결과 -

* 표식: ■ 직위점유(수, %), □ 불일치 설명변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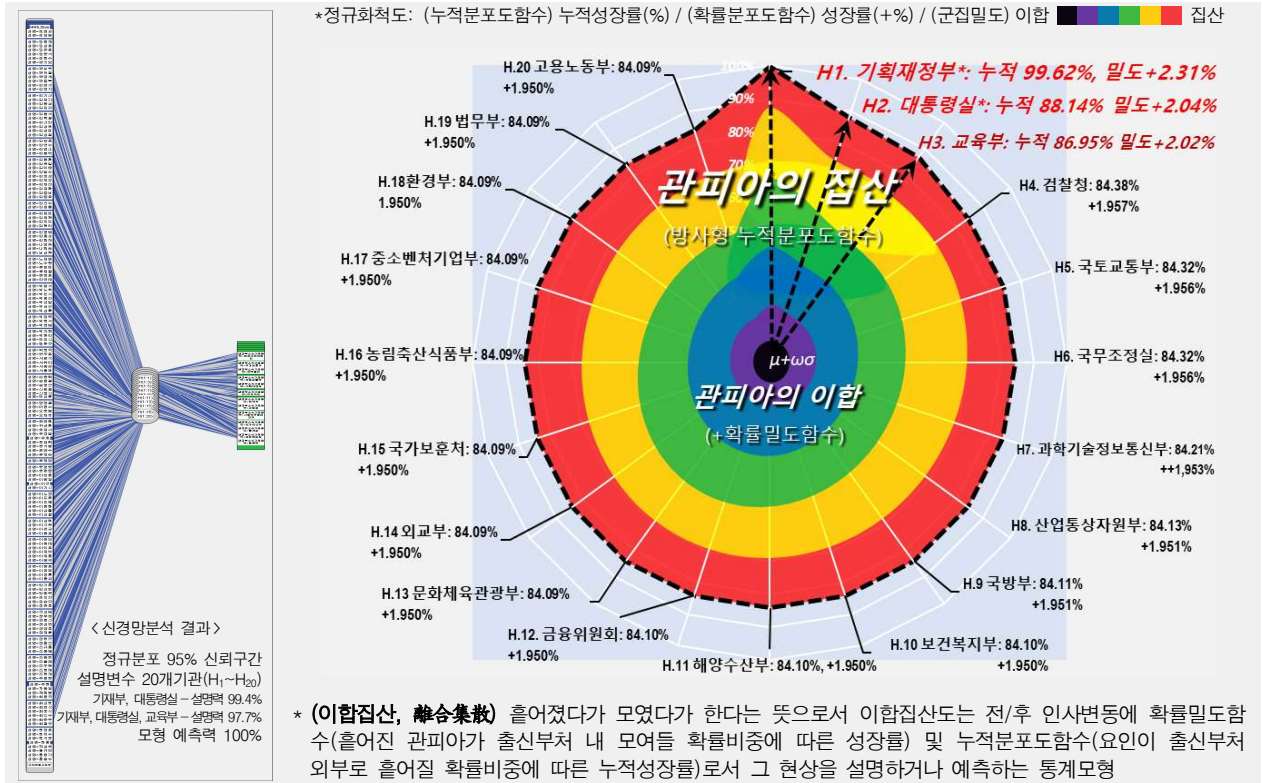
상관관계 0.497***

■ (위험도 측정) 위 내용을 종합, 고위직 관피아 회전문/낙하산 인사 변동에 따른 출신부처
 내/외 이합집산도 및 균형위험도를 측정한 결과, 1위 기재부 > 2위 대통령실 > 3위 교육부
 순으로 권피아 세력의 이합집산이 잦고, 민간과의 권력격차에 따른 불균형 역시 심화

- (이합집산도*) 관피아 세력별 분산과 집중에 따라 출신 부처 내·외 산하기관을 포함한 이합집산이 잦은 정부기관을 추산한 결과, 기재부(99.62%) > 대통령실(88.14%) > 교육부(86.95%)로 나타남 <참고9>.

<참고9> 고위직 관피아 회전문/낙하산 인사 변동에 따른 출신부처 내/외 이합집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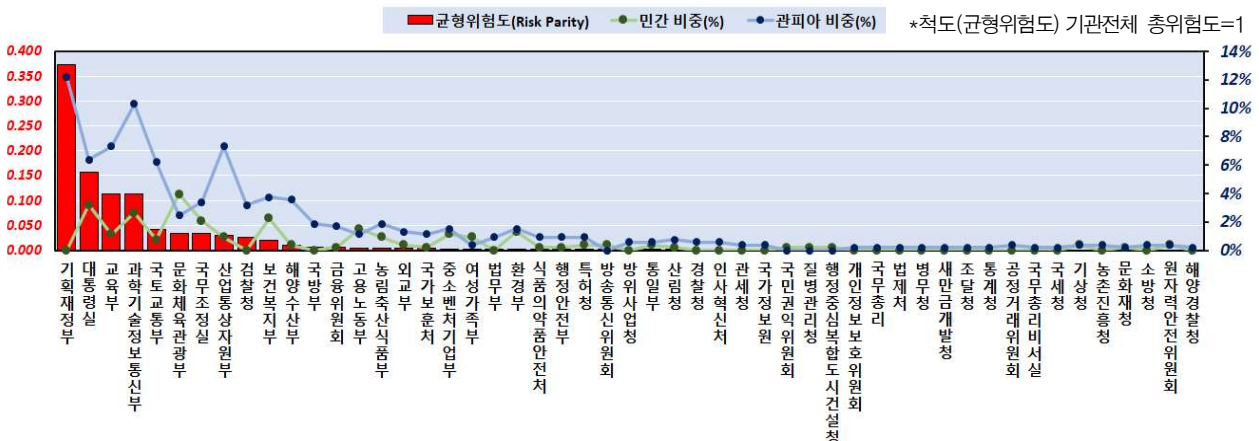
- 윤석열 행정부 내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한 방사형 누적분포도합수 중요·설명변수 시계열수(H1~H20) -



(신경망분석 결과) 기재부 등 상위 3개 기관들은 출신여부가 회전문/낙하산 인사(내정)를 결정하는 중요변수, 그 밖에도 17개 출신 기관들이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

- (균형위험도) 기관별 관피아와 민간과의 직위 점유율 격차에 따른 불균형을 측정한 결과, 기재부(0.373) > 대통령실(0.157) > 교육부(0.113) > 과기부(0.112) 순으로 추산 <참고10>

<참고10> 윤석열 정부 내 고위공직 관피아와 민간 간의 균형위험도



(예산완박 효과) 향후 타부처 예산 약 231.4조원이 모피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